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성모의 밤

5월 성모성월을 맞아 본당 레지오 마리아 평화의 모후 Pr.에서 성모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글, 찬시나 노래를 봉헌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5월 25일(토) 오후 7시 30분

준비물 : 묵주, 성가책

문의 : 김정숙 이사벨라

● 2019년 성경 공부 - 마르코 복음 여정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강의실 교재비 : \$30

● 새 성모회장 선출

오늘 미사 후 새 성모회장 선출이 있습니다.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Catholic Strong Campaign

성당 발전 모금 활동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액 합계 : \$32,200.00>

신부님, 권혜원, 최영숙, 김연자, 김재숙, 이경실, 이상민, 김광대, 이보월, 김성문, 황선동, 안우풍, 박영희, 윤모니카, 송미라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3일 날짜 : 9월 9일(월)

비용 : 3,500불 가량 문의 : 윤모니카 회장님(254-289-1682)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로사리아 구역 : 오늘 친교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구역 소식

김영미 로셀리나 자매님이 로사리아 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비오** 구역입니다.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비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리아**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운 프란치스코
평협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화요일) : 오후 8시

(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든지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평협회 : 수시 모임, 수시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69번 지극히 거룩한 성전
제1독서	사도행전 14, 21ㄴ-27
화답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 하나이다.
제2독서	요한 묵시록 21, 1-5ㄴ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 요한 13, 31-33 ㄱ. 34-35
봉헌성가	259번 성모 승천
성체성가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퇴장성가	6번 찬미 노래 부르며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 하나이다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부활 제5주일 5월 19일	부활 제6주일 5월 26일	주님 승천 대축일 6월 2일
제1독서	권명자 율리안나	김정숙 이사벨라	신선희 카타리나
제2독서	황선동 스테파노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정숙 이사벨라
봉헌자	최영숙, 정의환	신선희, 신용철	

오늘의 묵상

사랑하는 이들끼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곤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게 되는데, 그 선물이 상대를 살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선물하시는 당신의 생명은 ‘성령’이시며, 성령께서 곧 ‘하느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께서 아드님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드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위하여 당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 하시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당신 성령을 통하여 아드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한 이 삼위일체 신비가 모든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위하여 당신 생명과 같은 성령을 선물하시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의 성령을 또 보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만이 하느님과 이웃에게서 영광을 받습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주일정성

< 5월 12일(일) >

봉헌금	\$499.00
미사 예물	\$90.00
매일 미사책 판매금	\$109.00
Total	\$698.00